Les Éolides, M. 43

- □□

정보

César Franck: Les Éolides, M.

43

작곡가: César Franck (1822–1890)
작품명: Les Éolides, M. 43
장르: 단악장 관현악 작품, 교향시로 널리 분류됨
작곡 시기: 1875년 9월 –1876년 6월
초연: 1877년 5월 13일, Salle Érard, Paris, 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 Édouard Colonne 지휘
IMSLP: https://imslp.org/wiki/Les_%C3%89olides_(Franck%2C_C%C3%A9sar)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Les_%C3%89olides

César Franck의 Les Éolides, M. 43은 1875년부터 1876년까지 작곡한 단악장 관현악 작품이다. 제목은 Charles-Marie Leconte de Lisle의 시 Les Éolides에서 가져왔으며, 에올로스의 딸들과 봄바람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옮긴다. 시의 사건을 순서대로 묘사하기보다 , 하프와 목관, 반음계 선율, 되풀이되는 리듬 세포로 바람의 움직임과 색채를 만든다.

개요
이 작품은 후대 카탈로그에서 Op. 26, FWV 43, CFF 127로도 표기된다. Franck는 1875년 9월 28일에
작업을 시작해 1876년 6월 7일에 마쳤고, 1877년 5월 13일 파리의 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 연주회에서 Édouard Colonne의 지휘로 처음 연주되었다. 짧은 관현악 작품이지만, 선율이 악기군 사이를
옮겨 가고 조성이 여러 번 바뀌면서 한 호흡의 교향악적 흐름을 만든다.

Leconte de Lisle의 시에서 에올리데스는 아이올로스의 딸이자 봄의 부드러운 바람이다. Franck의 음악은 이 신화적 인물이나 시의 장면을 등장인물처럼 재현하지 않는다. 대신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리듬, 가벼운 하프의 잔향, 목관이 이어받는 선율을 통해 공기의 움직임을 암시한다.

출판 정보와 자료

Enoch는 1882년에 이 작품의 두 대의 피아노 편곡을 먼저 출판했고, 관현악판은 1893년 파리에서 초판이 나왔다. 현대 연주용으로는 Durand 서문을 포함한 판본과 출판사 자료가 작품의 형식과 편성을 설명한다.

병행 작품번호가 많으므로 연주회와 음반에서는 M. 43, Op. 26, FWV 43, CFF 127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소요 시간

전곡은 연주에 따라 약 10–12분이다. 빠른 부분의 템포와 반복 처리에 따라 10분 안팎으로 짧아질 수 있지만, 작품 자체는 하나의 연속된 악장으로 연주된다.

편성

목관: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호른 4, 코넷과 트럼펫
타악기: 팀파니, 트라이앵글 , 매달린 심벌즈
기타: 하프
현악: 현악 5부

한 관씩 놓인 목관은 피콜로나 잉글리시 호른 같은 보조 악기를 겸하는 대편성과 달리, 각 음색의 윤곽을
가볍게 드러낸다. 하프는 화성을 두껍게 채우기보다 선율 사이에 잔향을 만들고, 목관과 현악은 짧은 동기를 나누어 연주한다. 이 조합이 바람의 가벼움과 관현악의 지속음을 함께 만든다.

단악장 구성

서주와 제시부

서주는 A major를 중심으로 시작하며, 짧은 리듬과 유연한 선율이 서로 겹친다. 이어 제시부에서 주제가 여러 악기군으로 옮겨 가고, E-flat major와 F-sharp major·minor가 새로운 색을 만든다. 선율은 길게 노래하다가 짧은 음형으로 끊기며, 하프와 목관의 가벼운 반주가 그 사이를 잇는다.

발전부

발전부에서는 서주에서 들은 동기가 다시 나타나면서 조성의 중심이 흔들린다. 반음계 진행과 반복되는 리듬 세포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고, 현악의 지속음과 목관의 짧은 응답 사이를 빠르게 이동한다. 음악이
커졌다가 다시 가라앉는 과정은 바람이 세졌다 약해지는 움직임을 연상시키지만 , 특정 장면을 그리는 표제적 사건으로 고정되지는 않는다.

재현부와 코다

재현부에서는 앞서 분리되었던 선율과 음색이 A major의 중심으로 돌아온다. 서주의 동기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하프와 목관의 잔향이 빠른 악구를 부드럽게 감싼다. 코다는 새로운 주제를 길게 확장하기보다 이미 들은 재료를 짧게 겹쳐 놓으며, 바람이 멀어지는 듯한 가벼운 종결을 만든다.

형식과 음향

이 작품은 하나의 줄거리를 따라가는 서사시보다 , 자유롭게 변형되는 소나타 형식과 교향악적 스케르초가
결합한 구조에 가깝다. 중심조성 A major에서 E-flat major가 대비를 이루고, 제시부와 발전부의 반음계가 두 조성 사이를 연결한다. 같은 동기가 악기와 조성을 바꿔 돌아오기 때문에, 10분 남짓한 길이 안에서도 시작과 끝이 서로 연결된다.

Franck의 관현악은 대규모 음량보다 색채의 변화를 앞세운다. 하프가 만든 투명한 공간에 플루트와 오보에가 선율을 놓고, 클라리넷과 현악이 그 선율을 다른 음역으로 이어받는다 . 짧은 리듬이 반복될 때마다 금관의
무게와 목관의 가벼움이 달라지며, 작품의 표제성은 신화의 사건보다 이 음색과 움직임에서 드러난다.

초연과 수용

1877년 파리 초연은 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가 관현악과 실내악 작품을 소개하던 연주회에서
이루어졌다 . 초연 뒤 작품은 오래 공연되는 대형 레퍼토리로 자리 잡기보다 간헐적으로 다시 연주되었고 , 1882년 두 대의 피아노 편곡이 관현악판보다 먼저 출판되었다 . 1893년 관현악 초판이 나오면서 작품의 원래 음향을 연주회에서 다시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었다 .

후대에는 Les Éolides를 Franck의 첫 본격적 교향시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작품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더 직접적인 단서는 장르 표지보다, 시의 봄바람 이미지가 반음계와 하프, 반복 리듬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주요 레코딩

Yan Pascal Tortelier / BBC Philharmonic (Chandos CHAN 9875): BBC Music
Magazine의 Robert Maycock은 이 연주를 민첩하고 대기감 있는 해석으로 평하며, 교향곡에서
익숙한 Franck과 다른 섬세한 관현악 음향을 들려준다고 설명한다.
Francisco Varela / Lviv National Philharmonic Orchestra (Guild GMCD7830, 2021
년 녹음): MusicWeb의 Stephen Barber는 약하고 강한 바람이 교차하는 흐름과 목관의 섬세한
연주를 높이 평가한다. 부드러운 프랑스적 음색을 중심에 둔 후대 녹음이다.

두 녹음은 같은 단악장 구조를 서로 다른 음향으로 보여 준다. Tortelier의 연주는 빠른 흐름과 투명한 분위기를 앞세우고, Varela의 연주는 목관의 선율과 부드러운 색채를 더 가까이 들려준다.

주요 자료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Les Éolides CFF 127: 작곡 기간, 1877년 초연, Édouard Colonne 지휘, 1893년 Enoch 관현악 초판.

Bru Zane Mediabase, Les Éolides: Leconte de Lisle의 시, 작품의 음향과 형식, 1882년 피아노 편곡, 초연 이후 수용.

Repertoire Explorer, Durand 판본 서문: 작품번호, 장르 설명, 단악장 형식과 조성 ·주제의 진행.

Wikipedia, Les Éolides: 병행 작품번호, 편성, 초연과 작품 개요.

BBC Music Magazine, Franck 관현악 음반 평: Tortelier와 BBC Philharmonic 녹음의 음색 · 속도에 관한 비평.

- MusicWeb International, Franck orchestral works: Les Éolides□ □□ □□□□ Chandos □□□ □□ □□ .
- MusicWeb International, Guild GMCD7830: Varela□ Lviv National Philharmonic Orchestra □□□ □□□ □□ □□ .